제303회 국회(정기회) 국정감사
지식경제위원회

'11년 9월 19일(월) **석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업 무 현 황

2011. 9. 19(월)

지식경제부

목 차

Ⅰ. 일반 현황 ····· 1

1. 기구와 정원 ····· 2
2. '11년 예산 집행 현황 ····· 4
3. 정기국회 법률(안) 개요 ····· 5

Ⅱ.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····· 7

1. 최근 실물경제 동향 ····· 8
2. 평가 및 시사점 ····· 9

Ⅲ.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····· 10

1.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····· 11

[1]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본격화 ····· 12
[2]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추진 ····· 13
[3]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····· 14
[4] 산업인력 육성·관리 시스템 혁신 ····· 15
[5] QWL 밸리 조성의 가속화 ····· 16

2.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·····17

[1] IT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·····18

[2]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·····20

[3]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 ··21

[4]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·····24

[5]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 ·····25

3. 무역·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견인 ·····26

[1] 최근 수출입 동향·전망 및 향후대책 ·····27

[2] 한미 FTA 발효에 적극 대비 ·····29

[3]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·····30

[4]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 ·····31

[5]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촉진 ·····32

4. 에너지수급 안정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·····33

[1]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····34

[2]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 ·····35

[3]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 ·····36

[4] 강력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절약대책 추진 ·····37

[5] 안전성에 기반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·····38

Ⅰ. 일 반 현 황

1 기구와 정원

◈ **지식경제부는 상업·무역·공업, 외국인 투자, 정보통신산업,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, 에너지·지하자원, 우편·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 (정부조직법 제32조)**

□ 조직 : 2차관, 6실, 17관, 1단, 62과, 6팀, 1본부, 2위원회, 6원, 5소, 3기획단

- ○ **산업경제 분야** : 산업경제실 3관 11과 1팀
- ○ **성장동력 분야** : 성장동력실 3관 16과
- ○ **무역·투자 분야** : 무역투자실 2관 6과
- ○ **산업·자원협력 분야** : 산업자원협력실 2관 7과
- ○ **에너지·자원 분야** :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5과 2팀
- ○ **기획·직속 분야** : 기획조정실, 감사관 등 4관 7과 3팀
- ○ **소속기관** : 우정사업본부, 무역위원회, 기술표준원 등 10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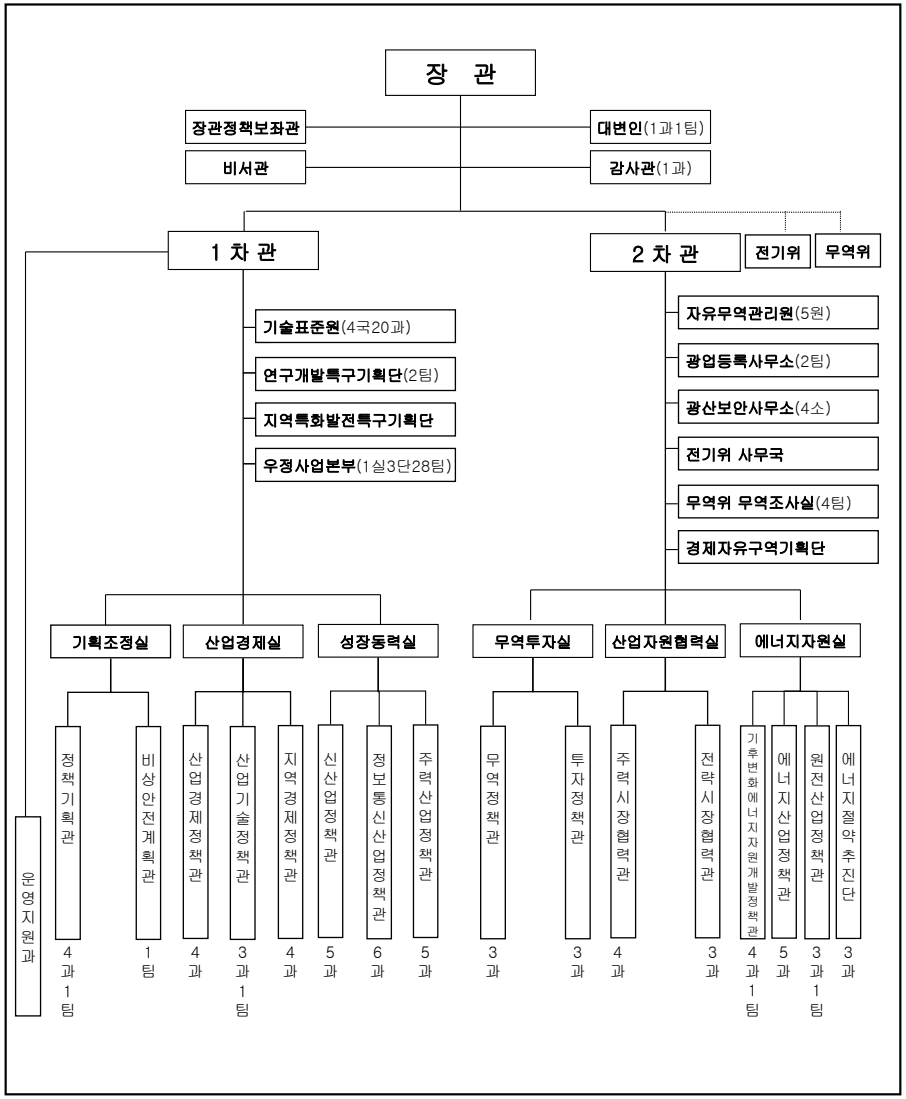
□ 정원 : 32,641명 (본부 796명 + 소속기관 31,845명*)

* **소속기관 31,845명 :** 우정사업본부 31,382명, 무역위원회 49명, 전기위원회 9명, 기술표준원 226명, 광업등록사무소 33명, 자유무역지역관리원 69명, 광산보안사무소 33명, 연구개발특구기획단 12명,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17명,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5명

[계급별 정원] ('11.6월 현재)

구 분	정무직	고공단	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연구직		기능직	계약직	계
		가	나									연구관	연구사			
본부	3	6	18	18	48	76	274	209	44	19	10		1	67	3	796
소속기관		3	21	7	184	36	602	3,192	2,346	3,273	983	41	25	21,132		31,845
총 계	3	9	39	25	232	112	876	3,401	2,390	3,292	993	41	26	21,199	3	32,641

참고 지식경제부 조직도



2 '11년 예산 집행 현황

□ '11년 세입은 10조 7,195억원, 세출은 15조 1,959억원

○ 집행실적(8.31일 현재) : 세입 62.9%, 세출 68.2%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0년도 결 산	2011년도		
		예산	집행(8.31)	집행율(%)
세 입	128,041	**107,195**	67,456	**62.9**
ㅇ 일반회계	2,154	903	653	72.3
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	141	116	120	103.4
ㅇ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	0	-	-	-
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	50,003	40,847	25,170	61.6
ㅇ 우편사업특별회계	33,590	36,721	21,071	57.4
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	36,001	22,080	15,604	70.7
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	6,151	6,528	4,838	74.1
세 출	150,845	**151,959**	103,780	**68.2**
ㅇ 일반회계	34,861	34,417	25,077	72.8
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	13,823	14,779	10,787	72.9
ㅇ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	97	579	74	12.7
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	40,637	36,855	22,909	62.2
ㅇ 우편사업특별회계	32,769	36,721	23,129	63.0
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	22,679	22,080	17,092	77.4
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	5,979	6,528	4,712	72.2

□ '11년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20,414억원 등 39,249억원

○ 집행실적(8.31일 현재) : 57.7%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0년도 결 산	2010년도		
		예산	집행(8.31)	집행율(%)
ㅇ 전력산업기반기금	17,933	20,414	13,093	64.1
ㅇ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	120	127	34	26.8
ㅇ 정보통신진흥기금	11,306	12,102	7,419	61.3
ㅇ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	4,604	6,606	2,115	32.0
소 계	33,963	**39,249**	22,661	**57.7**

*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

3 정기국회 법률(안) 개요

가. 11년 입법계획 및 추진현황

□ '11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추진 법률안은 총 25건

○ 현재 9건 법률안*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, 나머지 16건 법률안은 정기국회 중 제출 예정 (참고 : 2011년 정부 입법계획 법률안)

* 산업집적활성화법(통과), 부품소재법, 도시가스사업법, 기술이전및사업촉진법, 전통시장법,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, 부정경쟁방지법, 디자인보호법, 상표법

나. 정기국회 주요 법률(안)

□ 도시가스사업법('09년 상정)

○ 신규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허가 조항 마련

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○ 지자체 석유판매업의 조건부등록제도 삭제 및 불법 석유사업자 공표범위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

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
○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네거티브제 전환 및 자동 인허가 도입

□ 전자거래기본법

○ 전자문서 유통체계 마련,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체계 개선

□ 대외무역법

○ 전략물자 개념 확대 및 허가의 사후규정 정비, 원산지표시 검사 권한의 지방이양 등

참 고 **2011년 정부입법계획 법률(안) 목록**

법률명	주요 내용	비 고
1. 산업집적활성화법	○ 산학융합지구 제도 도입	법안통과
2. 부품소재법	○ 부품·소재 산업 지원 기간 연장, 기관설치 근거 마련	국회제출 완료
3. 도시가스사업법	○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전관리 사무 지방이양	
4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	○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네거티브제 전환	
5.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	○ 전통시장 정비사업 인가협의체 구성·운영근거 마련	
6. 중소기업 인력지원법	○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	
7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특별법	○ 부정경쟁방지 조사·시정권한의 지방이양	
8. 디자인보호법	○ 국제디자인출원 세부절차 및 내용 규정	
9. 상표법	○ 상표권 출원·등록 관련 기한 미준수시 구제수단 도입	
10. LMO 법	○ LMO 수입절차 완호 및 주요용어의 정의 보완	정기회 제출예정
11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	○ 불법석유사업자 처벌 강화	
12. 일반상품거래법(★)	○ 금 등 일반상품 현물거래서 개설·운영 근거 마련	
13. 전자거래기본법	○ 전자문서 유통체계 마련	
14.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	○ LPG 용기판매 지역제한 폐지 및 사업개시신고 등 지방이양	
15.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	○ 폐광지역진흥진구 개발실시계획 관련 인허가제도 개선	
16.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	○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 인허가제도 개선	
17.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법	○ 상담지원절차 개선 ○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규정 정비	
18. 대외무역법	○ 전략물자 개념확대 및 허가의 사후규정 정비 등	
19. 산업표준화법	○ 산업표준대상 명확화 및 인증 사후관리업무 일원화	
20.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	○ 벤처창업 및 관련자료 제공업무 지방이양	
21. 중소기업 진흥에관한 법률	○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권한 지방이양	
22.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	○ 사업전환계획 승인·취소 등 지방이양	
23. 발명진흥법	○ 산업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 신설	
24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	○ 영업비밀 보호범위에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포함	
25. 변리사법	○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통합	

※ ★ : 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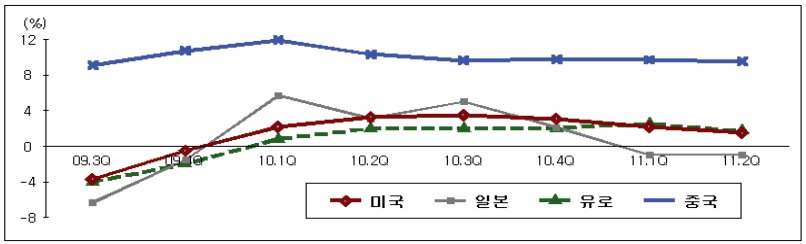
Ⅱ.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

1 최근 실물경제 동향

□ **(세계경제) 美·日·유로존 재정위기, 중국 인플레 우려**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**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**가 확산

○ `11년 들어 美·유로존 **성장률이 둔화 추세,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** 중

<주요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, %> * **전년동기비**



□ **(한국경제)** 전체적으로 **금년 2/4분기 3.4%의 성장세**를 유지하였으며, 실물경제는 **생산·수출·고용**에 있어서 **견조한 증가세**를 시현중

* 실질 GDP(전년동기비,%): (`10.1/4)8.5→(2/4)7.5→(3/4)4.4→(4/4)4.7→(`11.1/4)4.2→(2/4)3.4

○ **(생산)**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**광공업생산**은 전년대비 **증가세를 지속**하고 있으며, **제조업평균가동률**도 **9개월 연속 80%대** 유지

* 광공업생산(전년동월비,%): (`10.7)14.8→('11.3)9.1→(4)6.9→(5)8.2→(6)6.5→(7)3.8
* 제조업평균가동률(%): (`10.7)82.7→(`11.3)82.4→(4)80.4→(5)81.3→(6)82.5→(7)82.1

○ **(수출) 자동차·석유제품** 등이 **수출 증가세를 주도**하며 **19개월 연속 흑자 기록** ('10.2분기 이후 **세계 수출순위 7위** 유지)

* 수출증가율(전년동월비,%): (`10.8)26.0→(`11.4)23.5→(5)22.0→(6)11.2→(7)25.2→(8)27.1

○ **(투자)** '10년 **급등에 따른 기저효과**로 **증가세가 다소 둔화**

* 설비투자지수(전년동월비,%): (`10.7)31.5→(`11.3)0.5→(4)△0.6→(5)10.3→(6)4.7→(7)△2.7

○ **(고용)**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로 **견조한 고용회복 흐름 유지**

* 취업자 증가(전년동월비, 만명) : (`10.7)47.3→(`11.3)46.9→(4)37.9→(5)35.5→(6)47.2→(7)33.5
* 실업률(%) : (`10.7)3.7→('11.3)4.3→(4)3.7→(5)3.2→(6)3.3→(7)3.3

2 평가 및 시사점

□ 우리 경제는 **10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**을 기록하는 등,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후 **견조한 성장세**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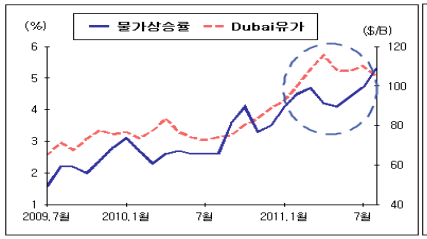
* GDP성장률(전년동기비,%): (`10.3Q)4.4→(4Q)4.7→(`11.1Q)4.2→(2Q)3.4

○ 1-8월 **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**이며, **산업생산도 증가세**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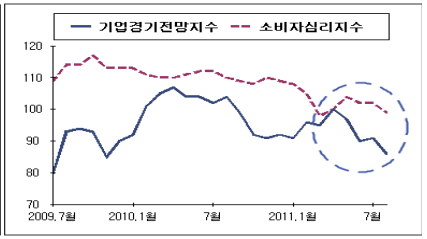
* 연도별 1-8월 수출(억불) : (`08)2,915 → (`09)2,256 → (`10)2,982 → (`11)3,707

○ 다만, **물가상승·고유가** 부담, **글로벌 경기 불확실성** 등으로 가계·기업의 **체감 경기가 악화**, 향후 **성장 둔화 요인이 될 우려**

<물가 & 유가 추이>



<경기체감지수 추이> *한국은행



□ 최근의 **글로벌 경기둔화 우려**로 **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**되고 있어, **선제적 대응이 요구**되는 시점

○ 관련 경제동향에 대한 **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대응체계** 구축

○ 장기적으로는, **각종 불안요인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**하도록 **건전한 산업생태계** 조성과 **미래 성장동력의 확보** 추진

①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 **공생발전**을 위한 **산업생태계** 조성
② **융합** 촉진, **신산업** 육성을 통한 **미래지향적 산업구조** 유도
③ **신흥시장 진출** 가속화 등 **해외로부터의 성장동력** 지속 창출
④ **녹색 경제** 전환, **안정적 에너지 확보**를 통한 **지속 성장 기반** 확립

Ⅲ.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

1.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

1 대-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본격화

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추진

3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
4 산업인력 육성·관리 시스템 혁신

5 QWL 밸리 조성의 가속화

1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

가. 추진 현황

□ **하도급법**('11.3), **상생법**('10.12), **조특법**('10.12) 개정 등으로 **동반성장 추진**을 위한 **제도적 인프라 구축**

* (하도급법)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,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(상생법) 기술임치제 실효성 강화 / (조특법)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촉진

□ **2차례 당정협의**(6.17, 6.30)를 통하여 **대기업 일감몰아주기**와 **MRO에 대한 대책** 마련(6.30)

*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,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적 상속에 대한 과세 추진 등

□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**중소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하여 **중소·중견기업 육성,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** 등 지원 중

나. 향후 계획

□ **9.29 동반성장 대책 후속 조치**를 차질 없이 추진

○ **동반성장위 주관**으로 **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**를 바탕으로 하여 **中企 적합업종** 선정('11.하~), **56개 대기업**의 **동반성장지수** 산정('12.3)

○ **중소기업 자생력 강화**를 위해 **중소·중견기업 R&D 역량 제고***, **뿌리산업 발전 기반조성 사업**** 등 추진

* 지경부 R&D 사업에 대한 중소-중견기업의 참여 비중 대폭 확대
** 핵심 뿌리기술개발,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, 뿌리산업 자동화·첨단화 지원, 특화단지 조성 지원 등

□ **유통산업 동반성장 추진**

○ **대형 유통업체**와 **납품업체**간의 **불공정 관행** 해소*, **중소상인 창업·고용확대**를 위한 **프랜차이즈 산업 육성** 등

* 「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1.하), 납품수수료 자율 인하 유도 등

□ **사회적 책임**에 관한 **국가표준 제정** 등 **기업의 인식 전환** 유도

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추진

가. 추진 현황

□ 지식경제 R&D **성과 제고**를 위해 **R&D 혁신 지속**

○ 대·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및 도전적 R&D 성과 창출 등을 위한 「**2단계 지식경제 R&D 혁신전략**」 수립('11.3)

* **PD 제도 도입 확대**를 통한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, **성실수행 용인**을 통한 도전적 R&D 촉진, 중소·중견기업의 **R&D 성과물 보호 강화** 등 추진

□ 신시장 선점을 위한 **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**의 차질없는 추진

* 신시장창출형 후보과제 선정('11.3), 조기성과창출형과제 사업자 선정('11.7)

나. 향후 계획

□ **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**

○ **중소·중견기업 지원 중심**으로 R&D 지원 확대 추진('11.10)

* 중대형 과제의 중소·중견기업 참여의무화, 중소·중견기업 전용R&D 확대 등

○ 중소기업청과 역할 분담을 통해 **R&D 성과가 우수한 강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**하는 **성장 사다리** 구축

* 지경부-중기청 산업기술로드맵 공동 작성 및 R&D 사업 연계

□ **사람 중심의 창조적 기술혁신 촉진**

○ **창의적 인재 육성**을 위해 **R&D의 인적자본 투자비중 확대**

* 인적자본 투자 비중 : ('10) 29.7% → ('12) 40.3%

○ **국민편익 증진**을 위한 **맞춤형 R&D** 본격 추진('11년 47억원)

* 기존 장애인 보조기기 중심 → 일반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 중심으로 확대

□ 지식경제 R&D 투자의 **선순환 시스템 구축**

○ 개발기술의 **이전·사업화 촉진**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('11.12)

○ R&D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**성과평가 관리 체계 강화**('11.12)

3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
가. 추진 현황

□ 광역권별 **선도산업*과 지역 전략·특화산업 지원**을 통해 광역 산업 생태계조성과 **지역산업 육성을** 차질없이 추진 중('11년, 7,700억원)

* 광역권별 2개 선도산업의 총 20개 프로젝트 및 46개 광역연계협력사업 지원으로 '09.5~'11.4월 기간 총 3조원의 매출, 11억불 수출, 5,682명 신규고용 달성

□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전면 개편**('11.1월)하여 **지역별 편중 지원 해소**를 추진하고 **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**

○ 지역구분 세분화(일반, 낙후 등), 지역별 예산한도 先배정, 신증설보조금 등

나. 향후 계획

□ **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**('12~'14년) **사업 기획 추진**

○ **지역주력산업을 선도산업에 추가***하고, 지역사업 관리·평가제도를 **고용친화형으로 개편**하여 지역기업의 **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**

* (현재) 권역별 신성장동력 2개 → (개편) 권역별 신성장 동력 2개+ 지역주력 2개

□ **신증설보조금 활용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**

○ 투자실적 평가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**신증설보조금 활용을 촉진**하여 지역내 투자 활성화

* 지방투자촉진보조금 :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+ 수도권지방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지원

□ **지역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지원**

○ 지역기업-지역대학 공동 R&D, 채용조건부 공동 R&D 우선 지원 등을 통해 **지역 중소기업의 우수R&D 인력 확보**를 지원

○ **희망이음 프로젝트, 취업박람회** 등을 통한 지역기업-대학의 **인력수급 불일치 완화**

4 산업인력 육성·관리 시스템 혁신

가. 추진현황

□ 산업인력 **수급 미스매치**로 **중소·중견기업**의 **인력난**과 **청년 실업**이 **지속**되고, **양성된 인력**의 **활용기반**도 **부족**

* 청년(15~29세) 실업률(%) : ('07) 7.2 → ('08) 7.2 → ('09) 8.1 → ('10) 8.0

○ 우수한 인재들을 **이공계**로 **유인**하는 **사회적 메커니즘**도 **약화**

□ 수요자 중심의 인력정책을 위한 **범정부 종합대책 수립·발표**('11.8)

나. 향후 계획

□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**산업인력**의 **효율적 활용기반 강화**

○ 기업·대학·출연(연)의 신규 R&D인력 채용확대 유도 등 **연구개발 관련 일자리 3만개 창출 기반 마련**

○ 군복무를 활용한 **한국형 탈피오트(Talpiot)*** **프로그램 운영**

* SW마에스트로, 사이버 국방학과 교육생 대상 군복무 후 창업·취업 지원
* 탈피오트(Talpiot) : '최고 중의 최고'라는 뜻의 히브리어.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부대로 제대 후 군복무시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벤처 창업

□ 양성된 인력이 **졸업**과 **동시**에 **현장**에 **투입**될 수 있도록 **산업현장성 중심**의 **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축**

○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학생들의 **先취업 後진학*** **기회 확대**

* 현장실습교육 강화, 대기업·공공기관과의 채용협약 확산 등

○ **산학협력 강화**를 위해 커리큘럼 혁신, 기업·대학간 매칭 강화

* 대기업 우수협력사 공동채용박람회,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등

□ 핵심 산업기술인력에 대해 **경력경로 멘토링**과 **전문 교육·훈련**을 **지원**하고, **퇴직 후** 컨설턴트 등으로의 **활동 연계**

○ 산업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**최우수 국가기술인재 선정·포상**(매년 10명 수준), **'명예의 전당' 운영** 등 추진

5 QWL 밸리 조성의 가속화

가. 추진 현황

□ 반월·시화, 남동, 구미, 익산 등 **4개 시범단지**에서 문화·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**시범사업**을 차질 없이 추진 중

○ 총 29개 사업 중 11개 사업 착공 및 4개 사업 완료

* 반월·시화단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완료('10.12), 남동단지 공동물류센터('10.12) 및 화물주차장('11.1) 준공, 구미단지 집적화단지 착공 예정('11.9)

□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QWL캠퍼스(산업단지 캠퍼스), 기업연구소 입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**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착수**

* 반월·시화, 구미, 군산 산업단지 사업기관 선정('11.6) 및 협약 체결('11.8)

□ **산업단지 명칭**을 新세대 취향의 복합공간 이미지에 맞게 **변경**

* 구미(구미 IT파크) 등 6개 산단의 명칭 선정 완료 및 연내 3개 추가 선정

나. 향후 계획

□ 전국 최대 산업단지인 **반월·시화 산업단지에서 QWL밸리 성공모델**을 조기에 창출

○ '12년 10월까지 **산학융합지구와 QWL 문화센터** 설치를 완료

○ '13년 중 시화드림타운, 하수처리장 등 **13개 문화·편의시설 확충사업 모두 완료**

□ 광역경제권별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**QWL 밸리 확산**

○ **QWL 밸리 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**('11년말)

* 확산 우선순위 및 단지별 중점 추진사업 등 제시

○ 산업단지에서 마이스터고 학생의 **현장실습 확대와 先취업-後진학** 활성화를 위해 **산학융합지구 추가 조성**('11년 3개→'12년 6개)

2.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

1 IT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

2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

3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

4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

5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

1 IT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

가. 최근 동향

□ **세계 IT시장**은 **모바일 분야**를 중심으로 **빠르게 재편**

○ **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**하고 있으며, SW기업인 **애플과 구글을 주축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양분**되어 상호 경쟁

* 11년 시장성장율(%) : 휴대폰 13.7%, 스마트폰 45.3%

○ 구글 진영의 **국내기업이 최근에 급성장**하면서 **애플은 특허소송** 등을 통해 **견제**(11.2Q 시장점유율(%) : 애플 18.5, 삼성 17.5, LG 5.7)

- 애플의 특허공세로부터 **구글 진영을 보호**하고 **HW 경쟁력을 확보**하기 위해 **구글은 모토로라 인수**를 추진

○ 애플, 구글 등 **SW기업의 영향력**은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**향후 스마트TV 등 가전으로 확대**될 전망

□ **이러한 변화**는 SW, PC,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**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**되면서 발생

○ 그 결과, **IT 주도권**이 HW기업에서 **SW기업으로 이동**되고 HW+SW+서비스의 **융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강자**로 등극

□ 한편, **국내 IT산업**은 **HW를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**하고 있으나, 반도체·디스플레이·휴대폰의 **3대 품목에 편중**(IT수출 71% 차지)

○ **IT수출이 1,035억불**(11.1~8)로 **사상 최고치**를 기록했고 **메모리, 디스플레이** 등 주력 품목의 **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**

* 세계시장점유율(%, '07→'10→'11.상) : (D램) 49→58→63, (대형LCD) 44→51→53

○ 네트워크 장비, IT부품·소재 등 **핵심 HW와 SoC, SW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**하는 점이 문제

* IT장비 국산화율 : 반도체장비 20%, LCD장비 50%, 방송장비 20%, 통신장비 30%

□ IT산업이 **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주도하기** 위해서는 **장비·부품 등 핵심 HW와 SW 등 취약한 부분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**할 필요

나. 향후 계획

◈ **단기**적으로는 **IT 장비·부품 등 핵심 HW의 국산화와 인력양성**에 집중하고 **중장기**적으로는 **SW 경쟁력 확보와 융합서비스 창출**에 주력

□ 장비·부품 등 **핵심 HW의 경쟁력 제고**

○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**장비의 수요자 연계형 R&D를 추진**하고 **반도체 펀드를 조성**하여 잠재력을 갖춘 **장비기업**에 지원

* 반도체 펀드 1차분(600억원) 지원 및 2차분(900억원) 추가 조성 방안 검토

○ **국산 방송·네트워크장비의 내수 진작**과 수출 활성화를 추진

* 공공기관, 종교단체 등 非방송사 분야의 국산장비의 진출 확대 지원

○ 스마트폰 등 주력 품목의 센서 중에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**유망 8대 센서**(레이더센서, 자이로센서 등)**와 베이스밴드모뎀**(Baseband modem chip) **등 핵심 부품을 선정**하여 **R&D 지원**

□ **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**

○ **융합·SW시대에 적합**한 **창의적 고급인재양성**을 **지속 추진**

* IT명품인재양성(10년 연세대, 11년 포스텍), SW마에스트로(10년 100명, 11년 100명) 등

○ **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**을 위해 **대학 IT교육체제 개선**

* IT 교과과정 新모델 보급(10년 7개, 11년 8개 대학), IT 인턴십 강화(年4천명) 등

□ 클라우드 등 **융합서비스에 선제 대응**

○ **클라우드, 모바일RFID, 보안메일**(#메일) 등 **3대 서비스를 육성**

* (모바일RFID) 상품정보에서 결제까지 구매행위를 RFID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수행
* (#메일) 본인확인, 송수신확인 보장되어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전자우편주소

○ 범부처 공동의 「**기가 코리아**(Giga Korea) **전략**(11.下)」**을 수립**하여 원활한 융합서비스가 가능한 **세계 최고의 스마트IT 환경을 구축**

* 2020년 목표로 Giga급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, 관련 핵심기술(고성능 단말기, SW플랫폼 등) 개발과 융합 서비스(실감형 3D영상 등) 창출

※ SW 경쟁력 확보를 위해 **SW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 주력**

2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

가. 추진 현황

□ **국내 SW시장은** 국내 기업들의 인적자원 취약, 기술경쟁력 미흡 등으로 **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**

* **(패키지SW)** MS, 오라클, SAP 등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 점유(국내시장 64.4%, '09년)
* **(IT서비스)** IT서비스는 현지화 경향이 있어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이 국내시장 대부분 점유(81.4%),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은 저조
* **(임베디드SW)** 국내 시장 규모가 상당(78.9억불, 세계시장의 5.9%)하나, 국내기업의 영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대부분 외산 수입 (국산화율('08,%) : 휴대폰 15, 자동차 5, 로봇 5)

□ 정부는 **SW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**수출 확대,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증가** 등 일부 가시적 성과 도출

* SW수출(억불) : ('07) 7.8 → ('08) 9.2 → ('09) 10.2 → ('10) 12.3
*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(%) : ('09) 34.6 → ('10) 39.5 → ('11.6) 50.6

나. 향후 계획

□ **대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SW생태계의 건전성 회복**

○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확대, **국내 SW 수·발주 체계 개선**

* 공공정보화 시장에 SI 대기업 참여 제한 강화, '新RFP' 도입 의무화 등

○ **SW수출지원협의체**를 통한 수출, **대중소 동반 해외진출** 등 지원

□ SW기업의 **경쟁력 제고**를 위한 **기초체력 강화**

○ **(인력양성)** 대학(이론)과 기업(실무)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**창의성 있는 고급 SW인재**를 발굴·양성

*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, SW마에스트로, SW융합 채용연수사업 등 추진

○ **(R&D)** SW 新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명품SW 제품 개발을 위해 혁신형 R&D인 **WBS프로젝트***(총 2,000억원) 추진

* WBS(World Best Software) 프로젝트 중 하나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개발을 SW전문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지원

3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성장의 토대 마련

1.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

◈ **자동차,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지속 확대**

* 자동차 미국시장점유율(%): ('08)5.1→ ('09)7.1 → ('10)7.7 → ('11.1-7)9.1
* 조선 세계시장점유율(%): ('08)34.1 → ('09)29.2 → ('10)33.1 → ('11.1-7)53.4

◈ **향후 미래시장 트랜드**에 맞춘 **차세대 제품 기술개발 전략**(First-Mover)으로 **주력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**할 계획

* 그린화·친환경 → 자동차(전기자동차), 조선(그린쉽)
*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 개발 → 반도체(SW-시스템반도체 동반발전)
* 감성화 → 디스플레이(TV용 AMOLED, 플렉서블 패널)
* 중국 등 이머징마켓 부상 → 기계(신흥시장 유망품목 전략적 기술개발)
* 고강도·경량화 → 산업용섬유(탄소섬유, 아라미드, 고강도 PE)

가. 전기자동차

□ **(현황)** '10.8월 **소형 고속 전기차 개발** 성공 후, '13년 완료를 목표로 '11.8월 **준중형급 전기차 개발 착수**

□ **(계획)** 전기차 **초기시장 창출·확산**을 위해 **기술개발을 지속 지원***하고, **인프라 및 제도 등 기반**** 정비

*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('11~'13), 저가형 전기차 개발 추진('12~'13)
** 국가 충전기 구축 로드맵, 전기차 주요 부품 표준('12.12)·충전기 표준('11.9) 정비

나. 미래형 선박

□ **(현황)** 저탄소 녹색선박*, 해양레저장비 등 **핵심기술·부품 개발** 중

* 에너지절감형 최적 설계, 친환경 추진동력 등 오염 저감·연료절감형 선박
* '11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(조선분야) 240억원, 해양레저장비경쟁력강화 34억원 등

□ **(계획)** **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**에 대응하여 **녹색선박 공통기반 기술 및 부품 개발**을 지속 지원

다. 반도체

□ **(현황)** **메모리 산업뿐만 아니라** 시장규모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**시스템반도체·장비산업도 육성전략을 수립·**지원 중

* '11년 시스템반도체상용화R&D(150억),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R&D(20억) 신규추진

□ **(계획)** 휴대폰, 자동차, D-TV 등 **주력산업과 연계**한 **임베디드 SW-시스템반도체 공생발전형 생태계 구축방안 수립·추진**('11.10월)

라. 디스플레이

□ **(현황) 11세대급 LCD 장비, 터치패널, 온실가스 감축** R&D 지원

* '11년 디스플레이 녹색생산기술개발(50억), 감성터치기술개발(20억) 사업 신규 추진

□ **(계획)** LCD에서 **AMOLED로 시장**을 **확대**하고, 이를 선점하기 위해 **TV용 AMOLED, 플렉서블 패널**에 대한 **R&D 투자 확대**

* '12년 미래선도기술개발(투명·플렉서블 디스플레이) 신규사업 추진(예타 약 170억/연)

마. 기계

□ **(현황) 초정밀 가공기술, 차세대 패키징 공정 개발** 등 기계분야 생산시스템 핵심원천기술 개발 추진 중

* '11년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(생산시스템 분야) 666억원 지원

□ **(계획) 건설기계·공작기계 등** 신흥시장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**전략적 기술개발 및 장비의 친환경·고효율화* 유도**

* 고효율 터보 냉매압축기 개발('11년 15억원), 21톤급 전기굴삭기 개발('11년 20억원) 등

○ 기계산업 **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**에 대한 **자발적 지원 강화**

* 기계 가공설비 정도향상을 위한 설비 유지·보수 지원(매년 200개社), 중소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지적재산권 전략 수립 지원(매년 90개社) 등 지속 추진

바. 산업용 섬유

□ **(현황)** 탄소섬유, 아라미드, 고강력PE 등 **고강도·고기능성 섬유**에 대한 **지원을 강화**하고, **고부가 융복합 제품개발 추진 중**

* 중성능 탄소섬유 국내 독자기술 개발완료 및 양산계획(10년간 1조 2천억원 투자) 발표('11.6월) 등 국내기업 투자 가시화

□ **(계획)** 국산화 소재의 **수요연계 융복합 제품개발** 확대와 지속적인 **기술혁신**을 통한 **섬유산업의 첨단화** 유도

○ 섬유소재의 **기능성** 강화 및 대량생산기술 등 **가격경쟁력 확보** 지속, **고성능 탄소섬유** 등 최첨단 분야 **국산화 기술개발 추진**

* '11년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128.5억원, 탄소밸리구축사업 50억원, 첨단메디컬 섬유소재개발사업 30억원,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에 320억원 지원

2. 신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

가. 추진 현황

□ 고령화, 감성화,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**로봇, 나노, 바이오, 디자인** 등 **미래 신산업 수요 증가**

○ 금융위기 이후 **새로운 성장엔진** 및 **일자리 창출의 기회**로 부각

* 시장규모: 로봇(국내) : ('09) 1 →('10년) 1.8조원, 바이오헬스(세계): ('09) 3.4→('15년) 5.2조불
* 선진국도 미래성장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
  · 미국: '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' – 나노제조, 바이오, 로보틱스 등('09.12)
  · 일본: '기술전략지도 2010' – IT, 나노, 바이오 등 8대 분야('10.6)

○ 본격적 신산업 육성을 위해 **R&D 투자, 시장 창출, 창의적 인력양성** 등의 **강력한 정책 드라이브** 필요

* 로봇: 원천 기술 부족, 응용제품 개발 미흡(선진국 대비 2.5년 격차)
* 바이오: 국내 제약기업의 R&D 투자비율은 6.3%로 다국적 제약사 투자규모의 1/3수준
* 디자인: 내수시장(규모:'06년 6.8→'10년 5.1조원) 정체로 적극적 디자인 수출지원 필요(디자인 경쟁력 세계 15위권)

나. 향후 계획

□ **신시장 창출을 위해 혁신적 R&BD사업, 시장기반 조성사업 추진**

○ **(나노)** 나노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R&BD「**나노융합2020**」 추진

* '12~'20년간 5,000억원 규모로 3대 융합분야 4대 핵심전략사업 지원

○ **(바이오)** 범부처「**전주기 신약 R&D 추진**」및 **천연물 신약 개발**

○ **(로봇) RT**(Robot Tech) **융합제품**, 부품·원천 기술개발 및 R&D 기획 강화를 통한 **성과 제고**

□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다양한 **인재양성 프로그램 실시**

○ **(로봇)** '12년 **서울로봇고**의 **로봇마이스터고 지정 지원**(커리큘럼 개발 등)

○ **(바이오)** 맞춤형 **현장연계** 교육, **바이오 특성화 대학원** 추가지정 추진

○ **(디자인)** 디자인과 공학, **인문학 등 융합교육을 추진 중인 대학** 1-2개를 선정, **세계적 디자인 명문학교**로 육성

* 영국왕립예술대학(RCA)과 제휴, 국내 영재 디자이너 교육 실시('11.7월)

4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

가. 추진 현황

□ 부품·소재산업은 '11년 상반기 **수출**(1,235억불), **무역수지흑자**(399억불) **모두 사상 최대 성과 기록**

＊ 일본지진, 남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 수출의 견조한 증가
＊ 부품·소재 흑자(억불) : (08) 348 → (09) 512 → (10) 779 → (11.1~6) 399

○ '11.1~8월간 **부품·소재 대일 무역적자**가 전년동기 대비 **9.5억불 감소**하는 등 **대일역조도 개선**

＊ 부품·소재 대일 의존도 추이 : ('01)28.1%→('10)25.2%→('11.1~8) 23.4%

□ 다만, **글로벌 부품·소재 강국으로 도약**하고, **대일 무역역조를 근원적으로 개선**하기 위해서는 **장기적·체계적 지원방안** 필요

＊ 부품·소재산업의 지속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限時法인 부품·소재 특별조치법의 효력연장(10년) 추진중('11.8월 지경위 통과)

나. 향후 계획

□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**Only-One 소재*** 및 미래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**소프트웨어 융합형 시스템 부품 개발 추진**

＊ 하이브리드차(경량화 복합소재), 스마트 의류(고기능·친환경 섬유소재) 등

□ **Open Innovation**에 기반한 **글로벌 부품·소재 공급망 주도**

○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**신뢰성 개념을 강화**하고, **효율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**을 통해 **글로벌 명품 부품·소재 확보**

○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**국내 부품·소재기업 주도**의 **글로벌 기업-부품-수요기업 참여형 동반성장 R&BD 사업** 추진

□ 수요기업과 지속가능한 **共生형 부품·소재 강소기업** 육성

○ **중소기업들이 R&D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**할 수 있도록 **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 체계 개편**

○ **매출 정체, 거래처 축소** 등의 **성장통을 극복**할 수 있도록 **기술개발, 연구인력 등을 지원**하여 강소기업 성장을 유도

◈ 금년 11월중 **향후 10년의 부품·소재산업의 방향과 전략** 등을 담은 **「부품·소재 미래비전 2020」**을 수립·발표할 계획

5 산업전반의 융합촉진

가. 추진 현황

□ **(융합촉진기반 조성)**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산업전반의 융합촉진을 위한 **법·제도적 기반 조성**

○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**「산업융합촉진법」* 제정**(4.5일 공포, 10.6일 시행) 및 **후속입법** 추진**

＊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(총리주재) 설치,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(기준·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내 제품인증 허용) 등 근거 마련
** 입법예고(6.9~29), 공청회(7.11), 규제심사(9.5) 등 완료, 현재 **법제처 심사중**

○ 산업현장에서 중소·중견기업이 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**「산업융합촉진전략」 수립**(5.25일)

＊ 중소기업 융합신제품 사업화 촉진을 위한 **총62건의 시장출시 애로사례** 발굴(5월) 및 태양광LED, USN계량기 등 대표적인 융합제품 **모의인증** 지원(4월~) 등

□ **(융합 확산)** 산업·인문학·문화 등 **원거리 이종(異種)간 소통 활성화**

＊ 산업과 문화의 만남 컨퍼런스(2월, 지경부·문화부 공동), 제1회 한국산업융합학술대회(7월, 산업융합협회), 융합포럼(7월~, 생기원) 개최 등

나. 향후 계획

□ **(법·전략 후속조치)** 산업융합촉진법 **시행령 제정·발효**(10.6일) 및 **산업융합촉진 지원체계** 마련

＊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구성(12월),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지정(11월), 산업융합지수 개발(11월), 바이노, 나노, 디자인 등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운영('12년) 등

□ **(중소·중견기업 지원)** 융합 R&D, 비즈니스 모델, 적합성 인증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**중소·중견기업의 융합신시장 창출 지원**

＊ 중소기업 R&D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 산업융합주간행사(9.28~10.1일)
** 트럭지게차, 위그선 등 중소·중견기업 융합제품의 적합성인증 지원(11월)
*** 융합산업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**융합산업로드맵** 수립(12월)

3. 무역 ·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

1 최근 수출입 동향 · 전망 및 향후 대책

2 한미 FTA 발효에 적극 대비

3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

4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

5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촉진

1 최근 수출입 동향 · 전망 및 향후 대책

가. 최근 수출입 동향

□ **'11.8월까지 수출**은 전년동기대비 23.7% 증가한 **3,688억불, 수입**은 26.7% 증가한 **3,478억불**로 **무역수지**는 **210억불 흑자** 시현

○ **(수출)** 반도체 등 IT는 다소 부진한 반면, **석유제품, 선박, 자동차** 등이 **수출증가세 견인**

- 지역별로는 개도국(24.5%↑)과 선진국(19.7%↑) 모두 고른 증가세 시현

*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(%) : (석유제품) 76.0 (자동차) 28.0 (선박) 32.3 (반도체) △0.4 (디스플레이) △9.2

○ **(수입) 국제원자재가 상승**으로 **원유 · 가스수입이 증가**하여 **원자재 비중은 확대**된 반면, **자본재 수입증가율은 다소 둔화**

*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가율(%) : (원유) 49.5 (가스) 29.5 (반도체제조장비) △9.4
* 원자재 비중(%) : ('10년) 58.7 → ('11.1.1~8.20) 62.7

나. 수출여건 및 전망

□ **(여건) 글로벌 재정위기**와 이에 따른 **세계경제 위축** 가능성 등 **대외적 불안요인 존재**

○ **원-달러 환율**은 경상흑자지속에 따른 **달러화 공급우위**기조와 **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화 강세** 등으로 **변동성 확대**

* 원-달러 : (`11.1)1,119 → (3)1,120 → (5)1,084 → (7)1,058 → (8)1,073

○ **유가**는 중동사태 진정, 미·EU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**하반기에 다소 하락**할 것으로 보이나, **전년대비 높은 수준 지속할 전망**

* 유가(두바이, $/B) : (`11.1)93 → (3)108 → (5)108 → (7)110 → (8)105

□ **(전망) '11년 수출**은 전년대비 19% 증가한 **5,570억불, 수입**은 24% 증가한 **5,280억불**로, **무역수지**는 **290억불 흑자** 전망

다. 향후 계획

□ **비상 대응체계 가동**

○ **수출입과 외국인투자** 등에 대한 **'동향점검반' 운영**(8.8~)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추진

*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, 유동성 공급확대,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

□ **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**

○ 대중소기업간 공동마케팅, 프로젝트 공동수주 등을 통해 **동반성장 정책의 해외확산** 추진

*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포럼 개최(연 2회), 코트라내 동반진출지원센터 운영 등

○ **신흥시장 중심*으로 코트라 인력을 재배치**하고, **무역관·공동물류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**

* 신흥시장 인력: (`11) 1,013명 → (`15) 1,207명 (+181명)
무역관: (`11) 72개소 → (`15) 91개소 (+19개소)

○ 무역보험의 對중소기업 **직접지원 확대**('11년 19 → '12년 23.5조원) 및 유망 중소기업의 **보험한도 우대**

* '11년 對중소기업 지원 : (직접지원) 19조원, (간접지원) 75조원

○ K-POP 열기를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회로 적극 활용 (문화한류 → 경제한류)

* 중국 충칭 한국상품전('11.10), 2011 파리 코리아 브랜드 & 한류상품 박람회('11.12), 한류패션 중국 로드쇼(10월 청두·광저우, 12월 항저우·시안)

□ **무역 1조 달러 달성* 및 Post 무역 1조 달러 준비**

* 미·EU 수요위축의 영향으로 달성시점(당초전망: 11월말)은 다소 지연 가능

○ **민·관의 역량을 총결집**하여 **무역 1조 달러를 반드시 달성**

○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후의 **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로운 무역비전과 신무역전략 수립**

2 한·미 FTA 발효에 적극 대비

가. 한·미 FTA의 경제적 효과

□ 中·日·EU 등에 앞서 **세계 최대인 미국시장 선점**의 기회

* 미국 수입시장 규모(`10) : 1.9조 달러 (中 + 日 수입시장 규모)

○ **관세인하** 및 기술장벽·무역구제 등 **비관세장벽 완화**로 **美 시장 접근성**이 높아지면서 **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**

□ **중장기적으로 국가브랜드 강화** 및 **제도 선진화**에 기여

○ FTA를 통한 **투자환경 개선**과 **동북아 FTA 허브 국가**로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**미국 및 선진국들의 FDI 증대 예상**

나.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활용전략

□ 기업이 **FTA**를 **시장진출 기회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

○ 해외전시회, 수출상담회 등 **지원수단을 총동원**하여 **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해외 마케팅** 지원

* KOTRA 對美 마케팅 지원을 '11년 48회 → '12년 58회로 확대,
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부처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

○ **중소기업**이 복잡한 **FTA 원산지기준** 및 **품목별 무역정보**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**무역정보인프라 구축**

* 통합무역정보시스템('11년부터 단계적 구축), FTA원산지관리 시스템('11.10월~) 등

□ **FTA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**를 지원하기 위한 **보완대책 내실화**

○ **對美 경쟁력 취약 기업**과 소속 근로자의 **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** 발생에 대응하여 **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기준 완화**

* 피해기준을 25%→20%로 완화('11.9월完),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(추진중)

3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

가. 추진 현황

□ **어려운 대내외 여건**에도 불구하고 **우리나라의 견조한 경제 회복세, FTA 기대효과** 등으로 FDI는 **최근 증가세를 시현중**

○ 다만, **미국 신용등급 하락, EU 재정위기** 지속 등 불안요인이 존재

< 외국인투자 현황 >

구분	2007	2008	2009	2010	2011.8 (전년동기比)
FDI신고액(백만불)	10,514	11,711	11,484	13,072	6,688 (22.4%↑)

□ 외국인투자 유치 및 **국민경제적 기여도 확대**를 위한 **'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계획'** 수립('11.7.14일)

* 투자유치 대상국 다변화,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제고, 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, 외국인투자 경영·생활환경 개선 등

나. 향후 계획

□ 유치활동을 선진국 중심에서 **신흥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**

○ 세계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는 **중국, 인도, 러시아 등 신흥국**에 대한 **유치활동** 및 **유치기반 강화**

* 신흥국 IR(중국 5월, 러시아 6월, 홍콩·싱가폴 9월, 인도 11월), 차이나데스크(1개소→3개소)

□ **국민경제 기여도 확대**를 위한 전략적 유치시스템 구축

○ **고용창출, 미래 성장기반 확충** 등의 유치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**유치활동** 강화 및 **인센티브제도 개편**

□ **민·관 투자유치 역량 결집** 및 **외국인투자 제도 선진화**

* 정책금융공사·IK 협력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 협력펀드 조성
* FDI 인정범위 정비, 외투지역 관리효율화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추진

□ **편리하고 안전한 외국인 투자환경** 조성

○ 입지, 지재권보호, 교육·의료 등 **경영·생활환경 47대 과제 개선 추진**

4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

가. 추진 현황

□ **신흥국과 여타 개도국 시장선점**을 위한 각국의 경쟁 심화

○ 에너지·자원 확보와 높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인프라 수요, **중산층(Volume Zone)*과 40억 저소득층(BOP)** 시장이 **블루오션**

* 年 가계소득 5천~3만5천달러의 **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중산층** 계층(8.8억명)
** 개도국 저소득층(BOP:Bottom of Pyramid)이나 경제성장시 잠재적 볼륨존化 가능

□ **미래 먹거리**를 위해 **협력실 신설('11.5)이후 전방위적 협력** 가속

○ **신흥시장**에서의 **자원확보*** 및 **자원개발+플랜트 복합형 사례****와 함께 선진국과도 **다양한 분야***의 협력성과** 모색

* **(이라크)** 한국 비상시 **일일 25만배럴 원유** 우선 공급(경제·에너지 협정, 4월)
** **(우즈벡) 수르길 가스전개발 + 가스화학 플랜트 EPC**
(카자흐)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, **아티라우**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
*** **(독일)** 원전 폐로 해체기술, 원전부품 다변화, **(프랑스) 전략광물 제3국 공동진출**

나. 향후 계획

□ 상대국 **발전단계와 개발수요 등에 적합한 맞춤형 양자협력** 추진

○ **(포괄적 산업자원협력)** 원전, 플랜트 등 **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** 산업·자원개발·인프라·농업 등 **패키지 딜 추진**

○ **(기술/ 훈련/ 자문)**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**기술기반 생산설비 해외이전**과 현지 거점을 통한 **산업인력 양성 및 지경부式* 산업발전경험** 전수

* 기존 기재부가 추진하던 거시계획 중심의 경험전수프로그램(KSP : Knowledge Sharing Program)과 달리 **특정산업 또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안** 전수

○ **(민관협력 확대:Private Public Partnership) 민간 자본·기술에 유·무상 공적 양허자금(ODA)를 결합**한 사업설계로 협력 효율성 제고

□ **중점 협력대상국가*를 선정,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**

○ **(선진시장)** 원전 안전기술,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자동차, 전략광물 등 **녹색기술 분야 협력 프로젝트 추진**

* **(미국)** 스마트그리드·클린에너지 R&D 등 **(EU)** 풍력, 태양광 등 신재생·친환경자동차

○ **(신흥시장)** 전력·플랜트 등 **대형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**하여 **IT·농공단지·적정기술 보급** 등 **포괄적 협력 추진**

* **(인니·콜롬비아)** 산업, 에너지·자원, 건설·인프라, 농림·수산분야 등 협력 추진 중

5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촉진

가. 추진 현황

□ 작년 9월, 경제자유구역의 **내실화·활성화**를 위한 **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」***을 수립·발표하고, **후속조치 추진 중**

* 주요 내용 : 엄격한 지정·개발기준 마련,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, 인센티브 제도 개선,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,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

○ 장기 개발지연 지역 등에 대한 **구조조정***, **성과평가**를 통한 경쟁 촉진, **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**('11.8 발효) **등 추진**

* 인천 계획미수립지 등 12개 지역 90.4㎢ 해제(전체 면적의 15.9%)

나. 향후 계획

□ **(기본계획 수립)**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**발전비전을 마련**하고 **차별화된 발전을 유도**하기 위한 **「기본계획」 수립**(10월)

□ **(추가지정) 4개 지자체의 추가지정 요청***에 대해서는 **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**과 **선결요건의 충족 여부** 등을 종합 검토 추진

* 신청지역 : 강원(18.0㎢), 경기(101.7㎢), 전남(33.2㎢), 충북(25.9㎢)

□ **(구조조정)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***을 마무리하고, 잔존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**「조기개발 추진계획」 수립**

* 충남 및 경기는 각각 소관 지역의 지정해제 계획을 지경부에 제출

□ **(외투유치 촉진)**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**투자환경 만족도 조사결과**를 기초로 **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**

* '11.8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실적은 총 33.6억불(FDI 기준)

○ **외국 교육·의료기관 유치** 관련 핵심규제의 완화를 위한 **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**하여 외국인 정주기반 마련

4. 에너지 수급안정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

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

3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

4 강력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대책 추진

5 안전성에 기반한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

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추진

가. 추진 현황

□ '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선·개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**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**

○ 제16차 당사국총회('10.12)에서 칸쿤합의문이 도출되었으나, **신규 체제에서의 의무부담** 등 **주요쟁점***은 **여전히 미결**

* 교토의정서 연장, 신규 체제의 법적 형태,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 등

□ 우리나라는 **非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**하면서 **全지구적인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**하기 위해 **자발적 감축활동 추진**

○ **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*('20년 BAU △30%) 발표('09.11) 및 **부문별·업종별 감축목표** 설정('11.7), 주요 감축수단으로서 '12년 **"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"** 시행 및 **'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** 등

나. 향후 계획

□ **(감축전략) 산업·발전 부문 감축 실행방안** 마련('11.下), '15년 **배출권거래제** 도입 대비 **합리적 시행방향** 강구

* 시범사업 운영, 국내 산업·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기반

□ **(목표관리제) 366개 관리업체**별 합리적인 온실가스·에너지 **목표설정**(9월말) 및 **이행계획** 수립(~12월말) 등 **차질없는 목표 이행 관리**

○ **온실가스** 배출량 및 **에너지** 사용량 **측정·관리 시스템 구축** 지원 등 **기업의 목표 이행지원** 병행 추진

□ **(감축기반) 중소중견기업** 등 **취약부문 지원** 및 자발적 감축유도를 위한 **법·제도적 기반* 마련,** 온실가스 **감축기술개발** 중점 추진**

*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, 자발적 감축실적(KCER) 정부구매 현실화 등 지원시책 추진
**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('11.6월)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로드맵('11.10월 예정) 수립

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

가. 추진 현황

□ '15년 **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**으로 도약을 위한 **'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'** 수립('10.10월, 녹색위)

구 분	'09년	'12년	'15년
• 생 산(조원)	4	20	50
• 수 출(억불)	20	107	362
• 고용(만명, 누적)	0.9	2.7	11
• 민간투자(조원)	3.1	5.7	8.6

□ **'30년**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**11%로 확대 추진 중**

나. 향후 계획

□ **(핵심·원천기술 확보)**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의 **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·소재·장비 개발 추진**

* '15년까지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(차세대 태양전지, 풍력발전, 바이오연료 등)에 1.5조원 투자, 8대 부품·소재·장비 개발에 1조원 투자

□ **(보급 확대) '12년 RPS**(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) **도입 및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**을 통한 10대 분야 **집중 설치 등 보급확대**

* RPS 연도별 의무비율: ('12) 2% → ('22) 10%
* 우체국, 항만, 학교, 산업단지, 공장, 섬, 군, 물류창고, 발전소, 고속도로 등

□ **(수출산업화) '15년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**해외진출 전주기 분야 지원 등 총력 지원**

*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추진,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

□ **(기업 성장 기반 강화)** 금융·세제, 인력 등을 선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추진

* 1,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증 펀드 조성 → 유망 중소·중견 기업 지원
* 폴리실리콘 원료 할당관세 적용 완료 및 태양광·풍력 분야 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중

3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

가. 추진 현황

□ 유망광구 매입, 해외 전문기업 M&A 등 **과감한 투자**를 통해 석유·가스, 전략광물의 **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**

* 석유·가스: ('07)4.2%→ ('10)10.8%, 6대 전략광물: ('07)18.5% → ('10)27%

□ **정상급 자원외교**를 통해 UAE 등 전략지역 진출 기반을 구축

* UAE('11.3), 이라크('11.4), 남아공·DR콩고·에티오피아('11.7), 몽골·우즈벡·카작('11.8)

나. 향후 계획

〈 자주개발률 목표 〉

▪석유·가스 : ('07) 4.2% ⇒ ('10) 10.8% ⇒ ('11) 14% ⇒ ('12) 20%

▪6대 전략광물: ('07) 18.5% ⇒ ('10) 27% ⇒ ('11) 29% ⇒ ('12) 32%

□ **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**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
○ **(UAE) 10억 배럴 이상 유전**의 **참여방식·폭을 구체화**하고('12년중), **3개 미개발 광구의 본계약** 체결(연내)

○ **(이라크)** 기존 사업(주바이르, 바드라, 아카스, 만수리아)의 성과 제고와 **제4차 유전입찰 참여 추진**

□ **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**을 획기적으로 제고

○ **(6대 전략광물) 동·우라늄**을 중심으로 **중남미·아프리카와 협력기반을 강화**하고, 유망기업 M&A 추진

* 6대 전략광물 : 우라늄, 동, 철광석, 유연탄, 니켈, 아연

○ **(新전략광물*) 중국外 제3국**(칠레, 아르헨, 볼리비아 등) **진출 확대**

* 新전략광물 : 리튬, 희토류

□ 자원개발 **공기업 역량강화와 내실화**

○ **(석유공사) 대형화 계획**('12년 日産 30만배럴 이상)에 따라 **유망자산을 신규매입**하고, **동해 8광구 시추 등 대륙붕 개발 추진**

○ **(광물공사) 민간기업과 공동진출을 확대**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

□ **자원개발 특성화 대학, 해외 인턴십** 등을 통해 **전문인력 양성**

* 자원개발특성화대학 '15년까지 1,500명, 해외인턴십 年100명 양성

4 강력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대책 추진

가. 추진 현황

□ **"2011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"**을 수립(11.1월 국무회의 보고)하고, **산업, 수송, 가정** 등 각 부문별 **중점과제 추진중**

□ **고유가 대응 위기경보 발령 및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**

* 주요조치 : **냉난방 온도제한,** 불요불급 **야간조명 소등, 승용차 요일제 등**

나. 향후 계획

□ **(全분야 에너지 효율향상)** 에너지 **저소비형 경제로 전환**

○ **(산업) 15개 업종(366개 업체)**에 대한 **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여 및 관리,**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자금지원 지속

*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: **국가총량 60%, 46% 차지**

○ **(수송)** 실주행여건*을 반영한 **자동차 연비표시 개선**, 기업별 평균 연비제도 강화('15년까지 17km/l)

* ①시내, ②고속도로, ③고속 및 급가속, ④에어컨 가동, ⑤외부저온조건 등 반영

○ **(가정)** 냉장고·TV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**효율기준 강화** 및 전열기 등에 대한 **에너지 비용표시제 도입**

□ **(에너지가격 합리화)**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**원가주의 요금체계**로 단계적 전환

* 원가회수율('11.8 기준) : 전기 90.3%, 가스 87.4%

□ **(국민 참여유도) "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**(전국 **150만 가구** 참여)" 등 **대국민 참여 프로그램** 활성화

○ 이웃집 대비, 전년대비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**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**

5 안전성에 기반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

가. 추진 현황

□ **일본원전사고를 계기**로 **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**(**'15년까지 1조원 투자**)하고 **안전 최우선의 정책**을 **추진**

□ **원전수출체계 정비·고위급 세일즈외교** 등 **원전수출활동**을 강화하고 UAE원전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**한국 원전 대외 신인도 제고**

* 한전내 원전수출본부 신설('11.4), UAE원전부지 기공식개최('11.3) 등

□ **중·저준위 방폐장 1단계**를 계획대로 진행('11.8월 종합공정율 82.8%)하고, **사용후 핵연료** 관리방안에 대한 **전문가 연구용역 완료**('11.8월)

나. 향후 계획

□ **안전한 원전 건설운영**을 위한 **원자력 산업기반 육성**

○ 유치신청 **지역동향** 및 원전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**원전 신규부지 확보 추진**('12년 말까지 최종선정)

○ **국내 원전**(운영중 : 21기, 건설중 : 7기)**의 안전한 건설·운영에 주력**

□ 일본 사고 이후에도 원전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**국가별 차별화된 수주활동*** **지속 전개**

○ 한국형 **원전의 안전성**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**수요자 맞춤형 기술 개발***

* 원전 면진시스템 적용기술 개발, 유럽 원전사업자 요건 기술개발 등

□ **원전 설비 확대**에 대비한 **중장기적** 방사성폐기물 **관리시스템** 강화

○ **(중·저준위) 1단계 공사는 12년말까지 완료,** 후속 건설도 조속 추진

○ **(사용후 핵연료)**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**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***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기본원칙 수립 추진

* 지역, NGO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'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' 구성·운영